

'그대는 봄, 꽃심이야기 세 번째' 공연

극단 모레노, 한옥마을 아트홀서 막 올려

극단 모레노가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올해 12월의 끝자락에서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다. '그대는 봄, 꽃심이야기 세 번째'라는 작품을 지난 29일 한옥마을 아트홀에서 막을 올렸다. 작품은 오랜 세월 한 동네에서 핏줄보다 강한 가족애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세 할머니들의 이야기다.

배우들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가 넘쳐난 전주 인심과 향수를 불러내기에 안성맞춤인 사람 냄새나는 연극이다. 이 작품에는 어리숙하지만 착하기만 한 봉레, 두 번의 결혼 실패로 개와 함께 살며 노년을 보내는 반너, 날이면 날마다 지식 자랑에 바쁜 정자가 등장한다. 이들은 깊이 패인 주름만큼이나 오랜 세월 친구처럼, 때로는 형제나 가족처럼 핏줄보다

강한 가족애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이다. 그러던 어느 날, 봉레에게 치매가 찾아온다. 오래전 연락이 끊겨버린 자식을 두둔하는 봉레의 모습에 반너, 정자, 자산들도 머지않아 다를 것 없음을 깨달으며, 서글퍼 한다는 이야기다. 예술감독 겸정숙 대표(극단 대표)는 "그간 '세월이 가도 결코 버릴 수 없는 꿈의 꽃심을 지닌 땅' 전주에서 '꽃심 이야기'로 공연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번 공연작 '그대는 봄'은 그 세 번째 이야기"라면서 "이 공연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출연진에 안혜영, 송은주, 백홍영을 비롯해 연출 김정숙, 기획 한지영, 홍보 송일섭과 원숙, 무대 이동화, 음향 김희진, 진행 김미경 이미리네, 이나라 등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2014년 5월 창단한 극단 모레노는 2017년 허심탄회-연극속의 심리극을 시작으로 '매달', '벽' 등 다수의 심리극과 전주 찬가 '골라골라 딸이 딸이', 시민연극제에 '전주서고사의 여랑기' 등을 무대에 올렸다.

또한, 꽃심이야기 1 사람나는 냄비, 2 전주 막걸리와 욕쟁이 할머니, 그리고 올해 세 번째 '그대는 봄' 작품을 공연했다.



극단 모레노가 코로나19 상황에 지친 올해 12월의 끝자락에서 특별한 공연을 마련했다. /유호상기자

장수군, 삼봉리 봉화터서 가야산성 확인

장수군은 장계면에 위치한 삼봉리 봉화터 발굴조사를 통해 가야산성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의 허가를 받아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소장 곽장근)와 함께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수 삼봉리 산성이 그 당시 장수기야에 의해 축조·운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밝혀졌다.

이번 발굴조사는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북도도와 장수군의 지원을 통해 이뤄졌으며, 지난 21일에는 장수 삼봉리 산성의 발굴조사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자문 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전문가들은 장수 삼봉리 산성의 입지와 형태·성벽의 축조방법이 최근 영남지역에서 발견된 가야산성과 유사하고, 산성에서 적지 않은 가야토기가 출토돼 6세기 전반 이전에 장수지역 가야세력에 의해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으로 추정했다.

또한 가야 멸망 이후의 6세기 후반에는 신라가 산성을 장악했으며, 그 과정에서 집수시설이 운영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발굴조사를 통해 장수 삼봉리 산성과 장수에 존재했던 가야와의 관련성이 보다 명확하게 확인돼 향후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가야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혁신성장 실천100' 경영비전 선포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용환)은 30일 '경영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재단 운영 슬로건을 '혁신성장 실천100'으로 선포했다. 이는 2026년까지 경영목표를 재단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수혜자 100만명', '매출액 100억원', '청렴도 100점' 달성을 목표로 밝힌 것이다.

태권도진흥재단은 경영비전 선포식에 앞서 '2021년 태권도인 방문객과 매출액'을 발표했다. 코로나19라는 동일 상황에서 전년도와 대비해 방문객은 99.5%가 증가했고 매출액 역시 77%가 증가했다. 이는 태권도인 실내의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방문객 대상 '코로나19 개인방역 준수 캠페인'을 통해 태권도 수련생과 방문객들로부터 방역을 위해 철저히 노력하는 이미지를 갖추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소규모 여행 상품인 태권투어와 태권스테이의 성공적 출시, 수도권 등 공격적인 현장 홍보 활동 등도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서 태권도진흥재단은 2026년까지의 경영비전을 '혁신성장 실천100'으로 선포하고 핵심목표로 '도약'과 '상생·협력', '통합·개혁'을 발표했다. '도약'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태권도 문화를 만들고, '상생·협력'은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발전적 관계 형성, '통합과 개혁'은 소통과



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핵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목표별 3대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과제를 세부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태권도진흥재단 오용환 이사장은 "도약, 상생·협력, 통합·개혁을 핵심목표로 삼고 태권도진흥재단을 국민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내실 있는 기관으로 만들어 가겠다"며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변화, 안전과 방역 강화, 인권 존중과 노사 화합 등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영비전 선포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했으며 감병용 정책지원관 퇴임식 등 중요식을 겸해 진행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군, 올해 문화재 지정·승격 최고 성과냈다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도시 등극

고창군은 올해 지역 문화재의 지정·승격에 잇따라 성공하며 '한반도 첫수도'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에만 유네스코 '고창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비롯해 국가·전북도 지정 등 모두 11건이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승격됐다.

▲국가지정문화재= '고창 봉덕리 1호분 출토 금동신발' (보물), '고창 병바위 일원' (명승), '고창 무장기포지' (사적), '윤도장·김희수 보유자 인정' (국가무형)

▲도 지정 문화재= '선운사 영산전', '석탄정', '삼호정' (도유형), '전봉준 생가터', '삼거리 지식묘군', '반암리 청자요지' (도기념물) 등이다.

이로써 고창군은 국가지정문화재 20점(보물 10, 사적 7, 명승 2, 천연기념물 7, 국가민속문화재 2, 국가무형문화재 1)을 비롯해, 국가등록문화재 2점, 도지정문화재 64점(유형 31, 무형

2, 기념물 12, 민속문화재 3, 문화재자료 16), 향토문화유산 13점 등 총 108점으로 크게 늘었다. ('고창 봉덕리 3호분 출토 금동신발'은 국립전주박물관 소장유물로 수량에서 제외함)

또 '문수사 대웅전' (보물), '고창오거리당산재' (국가무형), '고창농악' (국가무형), '신재호 관소리사설본' (도유형), '남담회맹지' (도기념물) 등도 현재 심의과정에 있다.

향후 군은 '이재난고'와 '무장읍성 출토 비격진천뢰', '상원사 목조삼세불좌상', '은곡리 최대고인돌' 등을 국가지정과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승격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특히 올 여름 '고창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고창 고인돌유적' (세계문화유산)과 '고창 농악', '고창 관소리'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를 모두 보유한 지역으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진정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도시'로 인정받았다.

여기에 '고창 병바위 일원'의 명승(名勝) 지

정은 자연과 역사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을 국가대표 문화재로 만들기 위해 애쓴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고창 병바위 일원'은 '고인돌유적'과 '갯벌', '선운사'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고창의 자연과 역사를 함께 보고 느끼고 있는 치유와 힐링의 문화재 관광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한 곳이다.

이외에도 '고창읍성', '고창 죽림리 지식묘군', '고창 용계리 청자요지', '고창 봉덕리 고분군',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등 사적지가 밀집돼 있다. 특히 무장읍성의 경우 최근 동문 옹성과 성곽 복원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를 연계한 역사탐방 코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고창군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존하면서 문화콘텐츠 개발, 최첨단 IT기술을 이용한 슬기로운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 실제 고인돌 유적이 문화재청의 '2022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사업'에 선정돼 프록션 맵핑 등 최첨단 융합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가 선보인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대, 교양총서 제3권 '동서양 문화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 발간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단 은다라 지역인문학센터가 교양총서 제3권 '동서양 문화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은다라 지역인문학센터의 교양총서는 '인문 아카데미'와 '교양 플라자' 등에서 호응이 좋은 강좌를 대중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기 위해 책으로 엮은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동서양 문화로 읽는 공존의 인문학'은 유교 문화, 도교 문화, 기독교 문화, 천주교 문화 등의 종교 문화와 서양 문화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 문화, 유교 교육의

현장이라 할 수 있는 향교의 이모저모를 조명한 대중교양서다.

저자로는 장순순, 김동희, 이경배, 이대승(이상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김천식(한국고전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김순석(전주전통문화연구원 원장)·전병구(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가 참여했다.

서정화 센터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우리 생활 속의 동서양 문화를 느끼고 호흡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au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